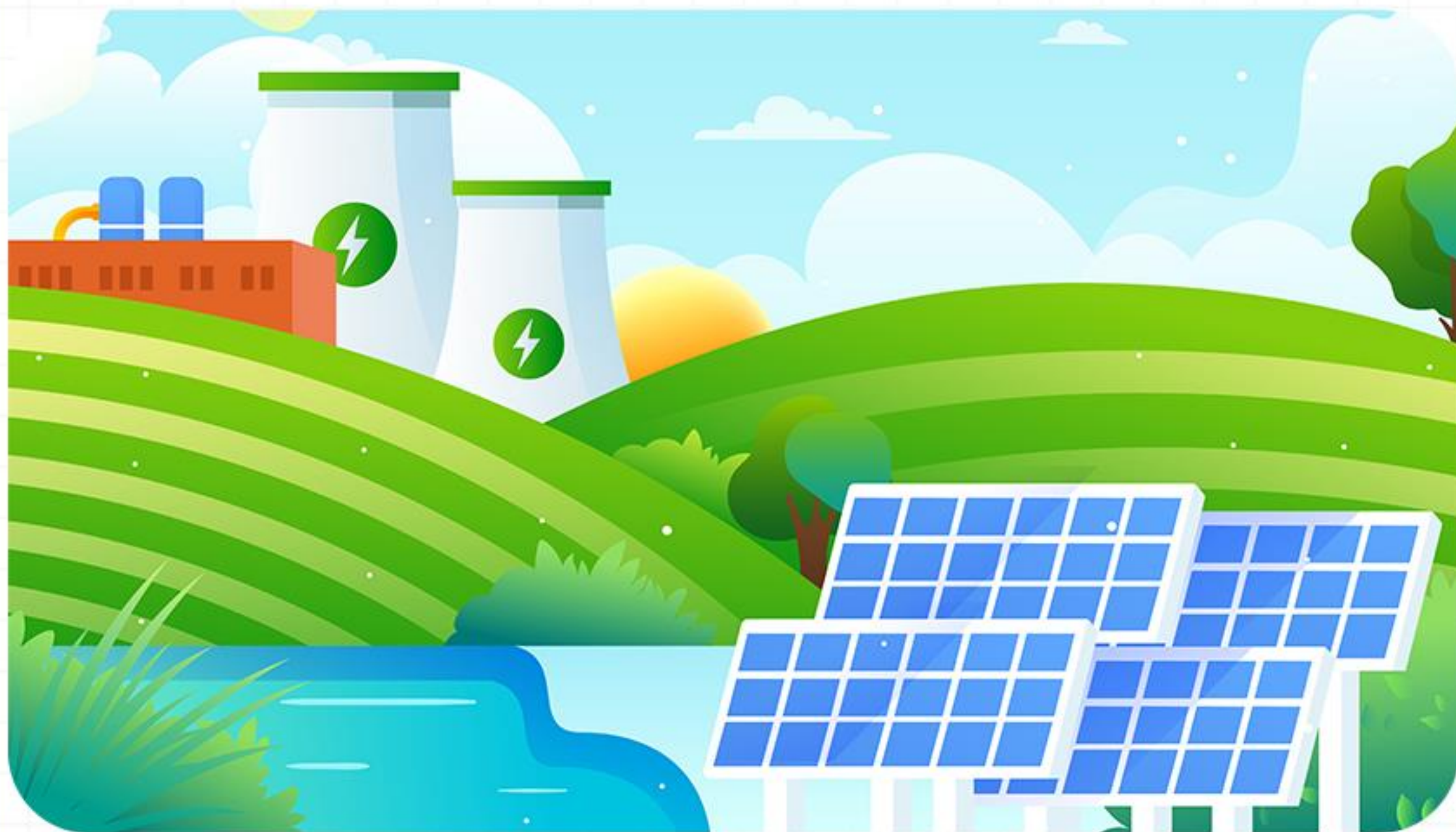


탄소중립, 온마을이 실천해요!
기후변화로 달라지는
우리 마을



기후변화를 막기 위해
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.



온 마을이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
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.

독일의 작은 도시인 **프라이부르크**에는
태양광을 이용하는 주택단지가 있어요.



벽 중 한 면 전체가 태양광 전지인
건물도 있습니다.

도시 중심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고,
시민들은 전기를 이용하여 운행되는
트램과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여



자동차나 버스에서 배출되는
온실가스 양을 줄여줍니다.

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용수로 쓰기 위해
물이 흐르는 작은 수로를 만들기도 했어요.



지금은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데
큰 역할을 한답니다.

영국의 **베드제드**(BedZED) 마을은
석유나 석탄 없이 개발되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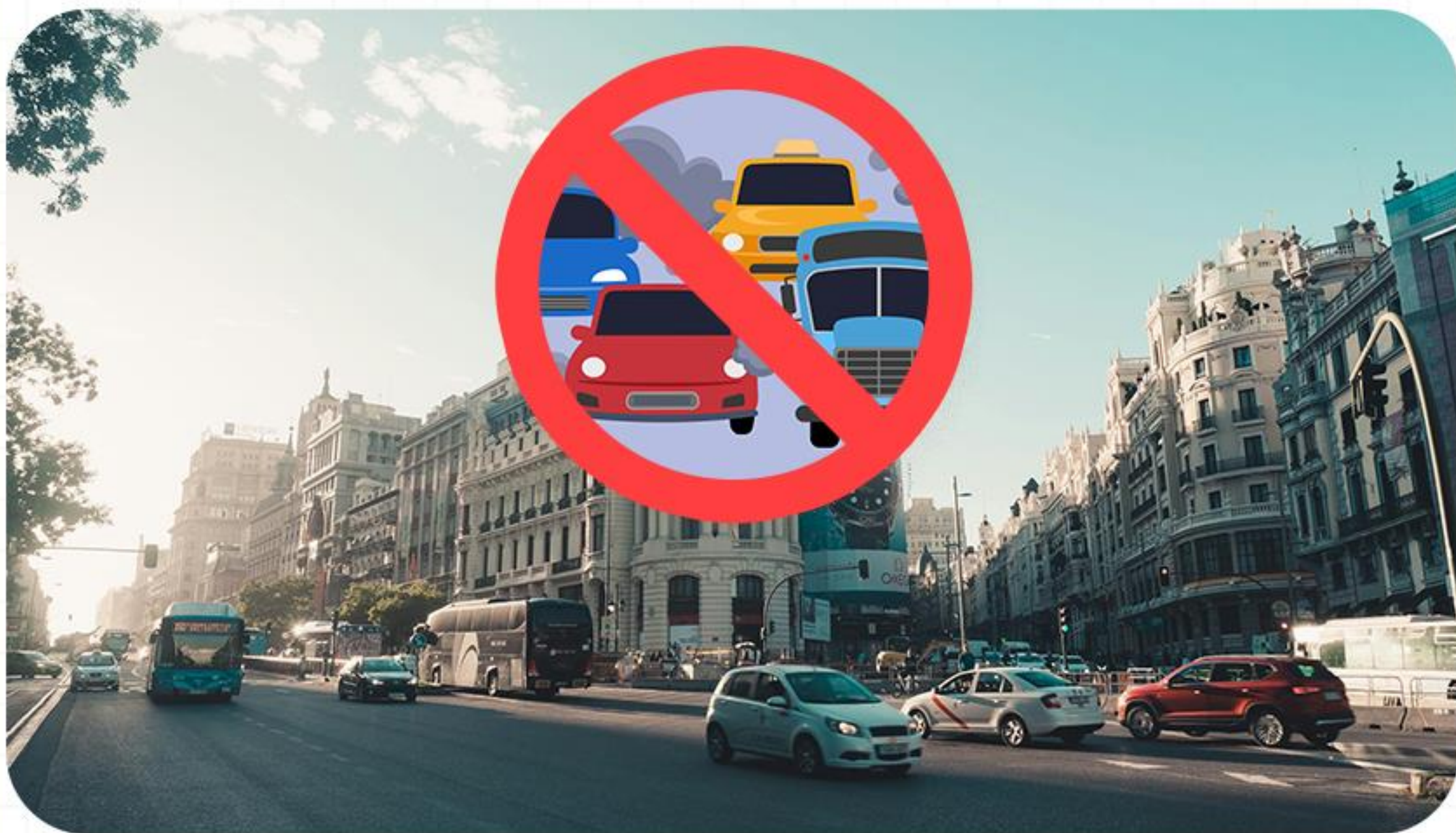


닭 벧 모양의 환기구가 **실내 공기를 배출**하고
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와,
미세한 바람으로 환기와 온도 조절을 하여
난방 없이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공용으로 사용하고,
단지 내에 부대시설을 배치하여
자동차 사용을 줄였습니다.



스페인 마드리드는 도로마다 다닐 수 있는
자동차가 따로 있습니다.




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 탄소를 많이 내는
자동차는 도시 한 가운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

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는 친환경
라벨을 부착하고, 등급에 따라 지정된 도로만
다닐 수 있습니다.



그래서 이산화 탄소가 2018년 기준보다
현재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해요.

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
여러 마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우리 마을에서는 어떻게
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을지
생각해 보자!

